

국가데이터처, 세계은행과 손잡고

아프리카 4개국 대상 데이터·통계 현대화 연수 실시

- 세계은행, 아프리카 데이터·통계 현대화의 롤모델로 한국 '국가데이터처' 지정 -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5월 11일(월)부터 5월 14일(목)까지 정부대전 청사에서 코트디부아르, 베냉, 기니, 토고 등 서아프리카 4개국 통계청 대표단을 대상으로 방문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추진 중인 아프리카 지역 통계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의 통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세계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다.

연수단에는 코트디부아르 티에코로 둠비아(Mr. Thiékoro DOUMBIA) 청장, 기니 마칸 둠부야(Dr. Makan DOUMBOUYA) 청장, 베냉 쥘 다가(Mr. Jules DAGA) 부청장, 토고 코조 도지 헤비(Mr. Kodzo Dodzi HEVI) 국장 등 각국 통계청 고위급 인사와 세계은행 서아프리카 관계자를 포함하여 총 19명이 참석하였다.

연수 프로그램은 △국가 통계 품질관리 및 정책 체계, △경제·사회·인구 등 통계 생산, △IT 기반의 효율적인 자료수집·생산·관리 체계, △통계포털(KOSIS) 및 통계지리정보(SGIS)를 활용한 이용자 중심의 통계서비스 등을 다룬다.

나아가 행정자료와 빅데이터를 결합한 혁신적인 통계 생산 방법론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계 생산 및 서비스 고도화 사례도 소개하는 등 아프리카 통계 현대화의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가데이터처는 그간 튀니지와 탄자니아를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통계 현대화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

이번 연수는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강화된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전략적 경제·외교 파트너십을 데이터 및 통계 분야로 확대한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연수에 동행한 세계은행 펠리시안 아크롬베시(Mr. Felicien Accrombessy) 선임전문가는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롤모델이며, 특히 국가데이터처는 통계 현대화 프로젝트의 벤치마킹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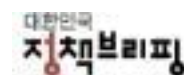
그는 이어 “세계은행의 재원 지원과 국가데이터처의 기술 자문이 결합된 협력 모델을 통해 아프리카 통계 시스템이 고도화되길 바란다”며, 통계 시스템 개발 및 기술 자문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연수에 참여한 둠비아 티에코로 코트디부아르 통계청장은 “한국의 행정자료 및 빅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AI) 기반 통계 생산은 아프리카 통계 현대화의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며, “세계적 통계 강국인 한국의 노하우가 각국의 통계 시스템을 도약시킬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데이터와 통계는 국가 정책의 핵심 기반이자 인공지능(AI)시대의 전략 자산”이라며, “이번 연수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통계 현대화와 함께 더 나아가 경제·사회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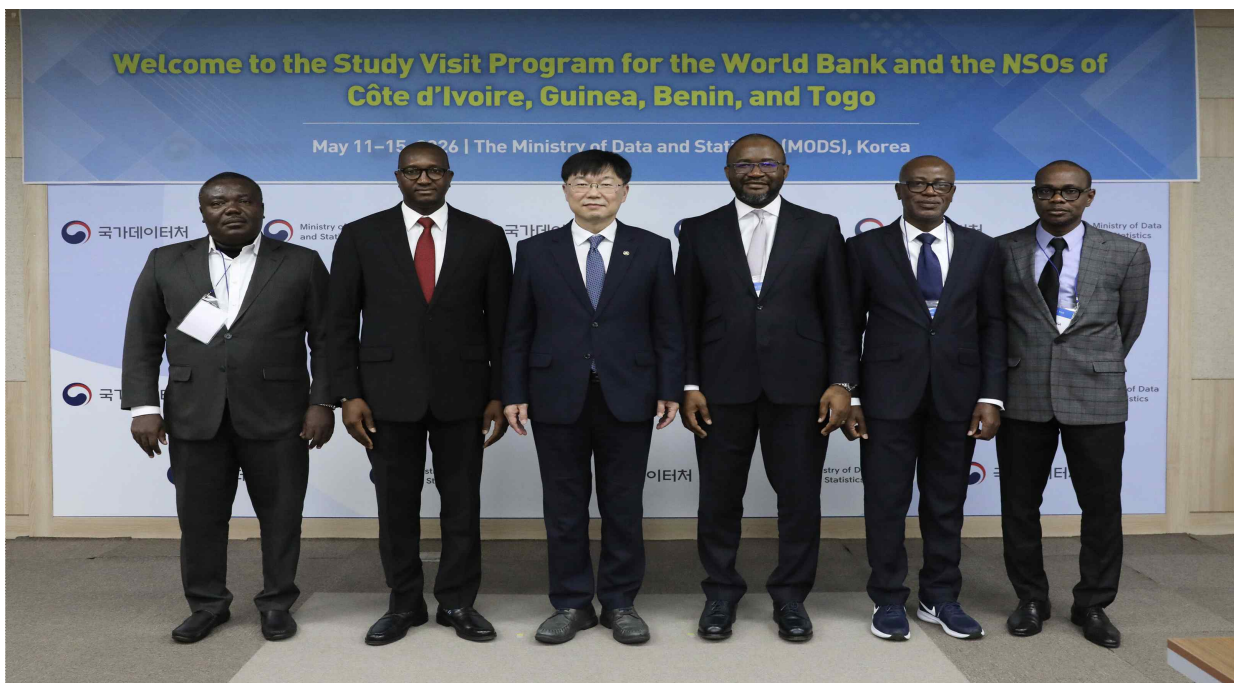
이어 “국가데이터처는 앞으로도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데이터·통계 분야의 국제사회 공동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윤영 (042-481-2095)
		담당자	사무관	정영심 (042-481-2098)





- ▶ 코트디부아르·기니·베냉·토고 통계청 대표단 방문연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안형준 처장



- ▶ 아프리카 4개국 통계청 대표단 및 세계은행 참가자와 기념 촬영